



Tower730



© Photo by AN news group(Jeongwon AN)

잠실의 시티라이프를 완성하다



News 잠실의 상업·업무지구가 모여 있는 올림픽로 35길에 위치한 Tower 730. 연면적 8만㎡, 지하 4층, 지상 27층의 임대형 오피스 빌딩인 이 건물은 현대건설의 시공 노하우로 완성한 건축 명작이다. 현대건설은 2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5월 19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 관련기사 6, 7면

Tower 730 is located in one of the most populated commercial and business districts in Seoul. The office building of 27 floors above ground and four basement levels, built on the total area of 80,000 square meters, is considered a masterpiece completed by the construction know-how of Hyundai E&C. Korea's primary builder finished the construction at the end of February, and the building dedication ceremony is slated to be held on May 19. ▶ Continued on page 6, 7

현대건설 '윤리경영' 뿌리내린다

임직원대상 '공정거래위반예방교육'...협력사대상 '투명윤리교육' 실시



4월 18일 본사 계동 사옥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위반 예방교육'. 이날 교육은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이 '윤리경영'을 2017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4월 18일 서울 계동 사옥에서 본사 전 임원 및 팀장, 관련부서 실무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김석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및 대선 후 정책 방향 ▶건설업계 입찰담합 사례분석 및 시사점 ▶부당 내 부거래 주요 이슈 및 현안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임직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현대건설 김택규 기획실장이 최근 현대건설의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현황 등을 발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협

력을 위한 온라인 윤리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총 32차수에 걸쳐 구매 및 외주 100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투명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을 개선해 시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 'Go to meeting'을 도입했다. 이번 교육은 ▶협력사 및 현대건설 윤리실천 강령 ▶건설업 구매 및 외주 관련 대표적인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는 구매·외주팀의 팀장과 파트장이 맡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참여 없이 윤리경영이 뿌리내릴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관련 시스템 정착에 힘쓰고 있다"며 "아울러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자율준수 캠페인, 입찰담합·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ndai E&C seeking to reinforce ethical management

Hyundai E&C provided an education program, intended to prevent offences against fair trading, at the company's headquarters, Seoul, on April 18. It was attended by about 400 employees including all executive members and team managers working at the head office and working-level employees of related business departments. The education program was designed to establish a fair trade culture and prevent violations against fair trading laws from reoccurring. Kim Seok-ho, a former standing member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roused attention to fair trading by giving a lecture on 2017 key issues of the FTC, along with its policy directions following the coming presidential elec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rigged bids made by construction companies; and major pending issues regarding unfair internal trading activities.

Meanwhile, an online ethical management program was offered to partner companies between March 27 and April 7. A total of 32 groups of 1,003 partner companies related to procurement and subcontracting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imed at promoting transparent and ethical business management. This year, Korea's primary builder chose a video conference system, called "Go to Meeting," over the conventional in-house learning in order to minimize time and cost consumption. The online education program gave a chance for the partner companies to clearly understand the code of ethics of Hyundai E&C and its partner companies and share key examples concerning procurement and subcontract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현대건설, 시장 기대치 부합하는 1분기 경영실적 달성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수익성 개선... '영업이익 228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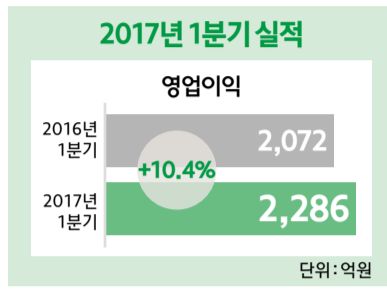
우리 회사가 저유가에 따른 해외건설 경기 부진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으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우리 회사는 4월 27일 2017년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조 1297억원, 영업이익 2286억원, 당기순이익 4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0.4% 대폭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말 대비 원달러 환율 급락의 영향으로 장부상 외화순자산 평가손실이 반영돼 전년 동기보다 49.5% 감소했다. 이는 단기간 환율 급락에 따

른 단순 평가손실이다. 특히 국내외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사우디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 등 해외 대형 공사와 가락시영 재건축 현장 등 국내 주택 현장의 매출증가로 안정적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해외 부문에서의 원가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한 5.5%를 기록하며 견고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미청구 공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말 연결 기준으로 3조6000억원이던 미청



구 공사 금액은 2984억원이 감소한 3조 30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대비 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밖에 수주는 이란 강간 석유화학단지, 김포 향산리 공동주택 등을 수주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조7248억

원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도 1분기 말 기준으로 67조4396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풍부한 해외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오일&가스, 송변전, 해양항만 등 기술적·지역별로 경쟁력 우위인 공종에 집중해 금년도 수주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올해 연간 24조3000억원의 수주와 19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기술 및 수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내실경영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름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우수인재 채용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글로벌 톱 탠트 포럼(Hyundai Motor Group Global Top Talent Forum)’을 개최하고, 해외에서 유학 또는 근무 중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및 예정자와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톱 탠트 포럼’은 기존 채용 과정의 실무면접을 대신해 아이디어를 포럼 형식으로 발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인재 채용 방식이다. 이번 포럼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등 총 4개 회사가 참여하며,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 전문지식을 교류할 예정이다.

‘SDA/DCU Revamp Project’ 수주



우리 회사가 4월 12일 현대오일뱅크로부터 1938억원(당사분 1188억원) 규모의 ‘SDA/DCU Revamp Project’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충청남도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일산 8만 배럴의 잔사유 처리시설(SDA: Solvent De-Asphalting)을 신설하고, SDA 공정에서 생산된 아스팔트의 피치(Pitch) 증가량을 처리하는 기존 열분해장치(DCU: Delayed Cocker Unit)를 개선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2개월.

우리 회사는 올 초에도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HDO Revamping Project’를 따낸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운전 중인 3개 공장(총 10개 공정)의 설비 증설(Revamping)을 맡았다.

우즈베키스탄 키브라이 1번 학교 IT교실 OPEN



우리 회사의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브라이에 위치한 1번 학교의 IT교실이 개관했다.

우리 회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컴퓨터 교육은 물론 적절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넓은 교실을 보수하는 한편, 컴퓨터 17세트,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우리 회사 정철희 타슈켄트지사장, 1번 학교 가이프나자르바 디바르 나자르바 교장, 키브라이지역 무하메도브 니그마트 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나자르바 교장은 “아이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게 돼 기쁘다”며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아이가 보다 더 나은 IT 환경 속에서 공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 상반기 국내 경영설명회

우리 회사가 본사 및 국내 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국내 경영설명회’를 했다. 4월 17일부터 나흘간 본사/수도권/충청·영동·영남·호남 등 지역별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2017년 사업계획 목표를 점검하고, 분야별 사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2016년도 실적 분석 ▶영업이익 1조원 내역 분석 ▶향후 전망 ▶수행 및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영업이익 1조원의 진정한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직원들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바로 알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상반기 국내 경영설명회’에 앞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중동, 동남아, 남미 해외 현장의 현장소장,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Shackleton’s Return’ 시작

현대자동차가 20일부터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Shackleton’s Return(탐험가 새클턴, 남극 횡단 100년의 꿈을 이루다)’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이번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은 영국의 대표적인 남극 탐험가인 에니스트 새클턴(Sir Ernest Shackleton)의 증손자인 패트릭 버겔(Patrick Bergel)이 싼타페 차량을 타고 남극 횡단에 성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에니스트 새클턴의 증손자 패트릭 버겔은 지난해 12월, 30일간의 여정으로 남극 유니언 캠프에서 맥머도 기지 간 왕복 총 5800km 횡단에 성공해 증조부의 100년 숙원을 풀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https://youtu.be/J01mqggN0h8)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으며, 현대자동차 글로벌 캠페인 웹사이트(http://shackletonsreturn.hyundai.com)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8km, 세계 최장 해상교량 [쿠웨이트 웨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내일의 기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쿠웨이트 웨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쿠웨이트시티와 북부 수바이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상교량으로 1,100여개의 해상 말뚝은 고층빌딩 높이(60m)며,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보다 긴 48km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48km

현대건설의 첨단 기술이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장대교량 건설기술 초고강도 케이블 및 가설공법 / 교강도 · 내구성 콘크리트 / 내풍설계 · 해석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제로에너지 빌딩 / IoT 스마트 홈 / BIM기반 디지털 건설

친환경 기술 해수 담수화 / 하 · 폐수처리 및 물 재이용 / 오염토양 정화

지속가능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 해양에너지(해상풍력/조류발전) / 태양열에너지



Bringing royal culture back to life

Apr20

If you are staying in Seoul during the upcoming nine-day holiday in the first week of May, royal palaces throughout the city are the places to visit. The annual "Royal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between April 28 and May 7. Now in its third year, the festival will focus on the Korean Empire (1897-1910), otherwise known as the final 13 year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s this year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empire.

During the Korean Empire, Deoksu Palace served as the main palace for the emperor and empress, and was also a key center of politics during the period. The palace near City Hall Station will also be the main backdrop.

"One of the highlights will be the re-enactment of Emperor Gojong's coronation," Son Hyeong-cha, who is in charge of the production, told reporters. King Gojong (1852-1919) of the Joseon Dynasty declared Joseon an empire hoping such a move would change its fate, and became the first emperor of the Korean Empire.

The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held in the evening at the Gyeong-



hoeru Pavilion in Gyeongbok Palace will be a spectacle, as it has been in the past. Another nighttime

performance that has been well-received over the years was Jongmyo Jeryeak, or music and dance performed at Jongmyo Shrine. Jongmyo Jerye, the ritual itself, is inscribed on Unesco's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is performance is a rare opportunity to enjoy

the practice at night.

There are also activities where people can taste food the royals of Joseon ate as well as experience the medical treatments of the time. At Sojubang in Gyeongbok Palace, which served as the royal kitchen of the period, people can try various cuisines made according to royal recipes. In Changdeok Palace, which is where Joseon kings resided the longest, there are programs where oriental medicine experts will diagnose participants just as royal doctors did

during Joseon.

According to organizers, about 430,000 people took part in the festival last year. This year, they hope that number reaches 500,000. As many of the programs are re-enactments and performances, 1,500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actors will be performing throughout the 10-day festival. For detailed programs, visit www.royalculturefestival.org. Tickets are available at Auction and Interpark.

By KOREA JOONGANG DAILY

'I'm glad to see more and more stars': Cha



Apr21

Cha Bum-keun, tied with Son Heung-min of Tottenham Hotspur as the highest-scoring Korean in European leagues in a single season, spoke highly of Son and talked about his career in the German league. As a retired football player, Cha is now vice president of the local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7 FIFA U-20 World Cup, starting next month.

"I'm glad my record from 31 years ago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gain," Cha said. "But I want Heung-min and other Korean football players

to continue to surpass my records."

Son is having by far the best season of his football career and is in a hunt to surpass Cha's record of 19 goals. Although the two are tied at 19 goals, it is highly likely for Son to surpass Cha's record since he has seven more games remaining in the season, recording five goals and one assist in four previous games.

Aside from Son, Cha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Lee Seung-woo, forward for the U-20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and FC Barcelona Jovenil A, as the next star in Korean football.

"Lee will be able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U-20 football team's play at the U-20 FIFA World Cup starting next month," Cha said. "In the near future, I hope to see Son and Lee play together on the national team scoring goals."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Hyundai Motor to test close to production i30 N in VLN Endurance Race Round 2 in Nurburgring



Hyundai Motor's close to production, i30 N, the first model from Hyundai's high-performance sub-brand N, entered the VLN (Veranstaltungsgemeinschaft Langstreckenpokal Nurburgring) endurance race April 8. Hyundai Motor engi-

neers from Namyang, South Korea, and European R&D centers will help hone the car'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head of its global launch later this year. The endurance race - held at the world-famous Nurburgring Nordschleife circuit in Germany -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Hyundai Motor to intensively test i30 N cars that feature technical specifications very close to the actual production car. The i30 N cars will be up against cars from other manufacturers that are heavily modified to cope with the demands of the VLN race.

Hyundai E&C launches official English Facebook Page



Hyundai E&C is stepping into the global scene through the 'English Facebook Page' (www.facebook.com/HDEC.Global) which opened last March, opening the door to communication with international overseas clients. Hyundai E&C

aims to deliver the most recent corporate news a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jects through Facebook page and communicate the 'Global Construction Leader' image in a more friendly manner. The animation 'Construction Story' which explains the bas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Image Report' which visualizes each business venture and outstanding case studies through infographics are designed to easily convey construction techniques or methods to non-professionals.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How to ask how to say something in Korean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walking in Myeong-dong and sees a high building above Mt. Namsan. He wants to ask his friend what it is called. At this point, he can say,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Dialogue

마이클 영민 씨, 저 높은 건물은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Yeong-min ssi, jeo nopeun geonmureun hangugeoro mworago hae-yo?
 영민 저건 남산타워라고 해요.
 jeogeon Namsan-tower-rago hae-yo.
 Michael Yeong-min, what do you call that high building in Korean?
 Yeong-min It is called Namsan Tower.

One more expression

'[Noun](이)라고 하다' can be used when you have a presentation and give an explanation. For example "저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I'm called Michael) or "이것은 오렌지 케이크라고 합니다." (It is called orange cake) to introduce what something is called.

Intermediate



How to say you didn't hear the phone ringing
 "전화 온 줄 몰랐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working while listening to energetic music on his headphones. Meanwhile, the phone has been ringing continuously. Yeong-min asked him why he didn't answer the phone and Michael wants to apologize and explain that he couldn't hear the phone ringing. At this point, he can say "전화 온 줄 몰랐어요."

Dialogue

영민 마이클 씨,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Michael ssi, awe jeonhwareul ran badayo?
 마이클 아! 미안해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a! mianhaeyo, jeonhwa on jul mollasseoyo.
 Yeong-min Michael! Why didn't you answer the phone?
 Michael Oh! I'm sorry.
 I didn't know someone called me.

One more expression

'[Verb] (으)ㄹ 줄 몰라요' can be used when you can't do an action well, for example "운전할 줄 몰라요." (I don't know how to drive) or "술 마실 줄 몰라요." (I can't drink well)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특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1970년대 국내 프로젝트(1)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다

네 차례에 걸친 확장 공사 끝에 1981년에 준공한 포항종합제철소.

조선소 건설에 뛰어든다

1960년대가 한국 건설업의 성숙기였다면 1970년대는 도약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전반기 현대건설의 최대 사업은 조선소 건설이었다. 회사 내의 인력이나 채무 등 모든 공사 경영이 울산조선소 건설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은 부지 선정과 기술 제휴 회사를 물색한 뒤 '조선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차관 도입 교섭에도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는 500원짜리 동전으로 영국 런던은행을 설득한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은행 측이 상환 능력과 잠재력 자체에 의문을 갖자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꺼내 보인 것.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실적과 두뇌가 있다. 영국 조선의 역사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서 있는 것이다"라는 정회장의 말로 차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차관계약 체결 후 현대건설은 생산 기술요원팀을 구성해 선진 기업에 유학을 보내는 등 기본 교육을 밟아 나갔다.

울산조선소는 설립 과정부터 사투를 방불케 했다. 1971년 당시 그리스 리바노스사로부터 25만9000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해 약속한 기일인 1974년 7월과 8월에는 각각 배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소 내에 기능공훈련소를 설립했다. 실제로 이 훈련소를 통해 배출된 조선기능공은 1200여 명에 육박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 기술자나 기능공 배출의 요지로 군림할 수 있게 됐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장은 1974년 6월 준공식과 유조선 12호의 명명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고로에 승결을 붙여낸다

우리나라는 산업고도화를 꾀함과 동시에 급증하는 철강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6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새로운 공장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그중에서도 포항종합제철소는 1970년대 초 시작해 네 차례에 걸친 확장공사 끝에 1981년 준공한 대형 공사로, 총공사비만 8812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포항제철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4개 고로(高爐)를 모두 시공했는데, 이는 시공기술 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공사에 속했다.

현대건설은 산소공장과 원료처리설비, 제강공장과 제선공장, 냉연공장 등 주요 설비를 시공했으며, 기존의 고로를 확장하는 개보수 공사도 진행했다. 하루 2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철야 맞교대를 하면서 하루 24시간 공사를 진행한 것 외에도 장애는 많았다. 현장은 방열복을 입고 작업해야 하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높은 온도뿐 아니라 석탄 분진이 날려 애먹기도 했다. 또한 외국에서 도입된 최신 설비이다 보니 모든 공정과 도면은 현장에서 바로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관들에게 신속하게 승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현대건설은 대내외에 시공능력을 과시함은 물론 플랜트 건설 경험을 축적해 세계적인 기업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발전소 건설로 진일보하다

현대건설은 1977년 평택화력 12호기 건설을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일괄도급 계약 수주로 발전소 건설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평택화력 12호기 건설공사는 내·외자 합계 862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고, 동원 인원만 해도 연 120만 명에 달했다. 평택화력발전소는 현대건설의 플랜트 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공사로 꼽힌다. 하지만 초기에는 플랜트 주변 기술들이 열악했던 만큼 자재나 재질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특히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해야 했기에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빠르게 부식되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감싸기 위해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했지만, 시운전 중 코팅이 통째로 벗겨져 파이프가 막혀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순수 국내 기술로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1980년 6월, 현장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 밖에도 이 시기에 현대건설은 인천 화력 3·4호기 연료유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다. 현장은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았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유달리 큰 지역이라 공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현대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1978년 8월에 착공해 2년 후인 1980년 5월 마무리지었다. 소수력 발전소 건설도 최초로 시도됐다. 소수력 발전소는 다목적댐보다 규모와 발전량이 적었지만 소액의 공사금액으로, 산간벽지의 전하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 동참해 연천소수력발전소(전곡소수력발전소)를 준공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했다.

◎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70s (1)

Hyundai E&C funneled its resources into the construction of shipyards in the early 1970s. To proceed with the Ulsan Shipyard project, Hyundai E&C participated in selecting a site, sought to form a technical partnership and accelerated its effort to acquire a foreign loan by coming up with its own "shipbuilding business plan."

After entering into the loan agreement, Hyundai E&C set out to lay the basic foundation to execute the project in a seamless way by establishing a technical engineering team and sending engineers abroad to learn from global leading companies. Nonetheless, there was a tough road ahead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In 1971, the Greek shipping company Livanos ordered two crude oil carriers carrying 259,000 tons of crude oil which were supposed to be delivered in July and August 1974, respectively photo4. To meet the schedule, Hyundai E&C opened a training camp within the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secure technical professionals, which led to producing as many as about 1,200 shipbuilding engineers.

The 881.2-billion-won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 project was a mega project which began in the early 1970s and was completed in 1981 photo1. During the period, Hyundai E&C undertook four extension works. The company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all four furnaces, regarded the heart of the steel mill, which was one of the most difficult constructions at that time in terms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enabled Hyundai E&C to boast its construction capability at home and abroad and get one step closer to becoming a global leading construction company.

Hyundai E&C was awarded an



**조선소·제철소·화력발전소 등에 도전
순수 국내 기술로 수많은 난제 극복...
새로운 시도로 국내 건설업 진일보**



2 연천소수력발전소.
3 평택화력발전소.
4 울산조선소 준공 후 어틀랜틱 바론호의 진수식 모습.

지난 4월 4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사상 첫 여성 감독이 탄생했다. 1990년대를 주름잡던 전설의 컴퓨터 세터, 이도희 감독이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진정한 ‘아마조네스’ 구단으로 거듭나게 됐다. 설렘 반, 부담 반으로 첫 감독 생활을 시작한 이도희 감독의 눈빛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엿보였다. 글=김보나/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3
2017/04/27/Thursday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이도희 신임 감독
“끈질긴 배구로
‘걸크러시’ 보여드릴게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봄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하 현대건설 배구단)이 훈련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마복 체육관을 찾았다. 체육관으로 들어서자 새로운 얼굴인 이도희 감독이 환한 표정으로 (사보신문)을 맞았다. ‘감독’이라는 직함을 단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지만 힐스테이트 로고가 새겨진 현대건설 트레이닝복이 잘 어울렸다.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도희 감독은 “명문 구단인 현대건설 배구단에서 감독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말문을 뗐다.

이도희 감독은 현역 시절 소속팀을 6년 연속 우승의 자리에 올려놓을 만큼 최고의 세터였다. 키는 170cm, 배구선수로는 단신에 속한다. 최고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된 연습과 훈련을 견뎠는지 짐작이 간다. 이도희 감독은 “훈련할 때에는 강도와 집중력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성 감독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여성 선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소통해 나갈 것이다. 선임견은 버려 달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감독직 제안을 받은 소감과 수락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감독이라는 목표를 꿈꿀 것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명문 구단의 감독이라면 더욱 욕심이 나죠. 선수 은퇴 후 공부와 하고 싶어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그러다 보니 스포츠지도론을 강의할 기회도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됐죠. 코



치와 해설위원도 거쳤고요. 스스로 좋아서 자연스럽게 맡게 된 일들이 감독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기회를 주신 현대건설 배구단에 감사드립니다.

감독 선임 후 누구보다 바빴을 텐데요. 어떻게 지냈나요?

축하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선수들과 면담하고 선수 선발도 구상했어요. 코칭 스태프도 새로 꾸렸습니다. 현대건설 배구단의 세터 인스트럭터로 활동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를

주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아주 달라요. 환경은 매우 좋아졌고, 대우도 많이 달라졌죠. 저희 때에는 “이렇게 하자”면 무조건 따라야 했어요. 요즘 선수들에게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사실 그게 바람직한 소통이고요. 선수들과 자주, 많이 소통할 생각입니다.



세터였던 만큼 세터진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세터들은 어디에 있던 제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또 가장 잔소리를 많이 들을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훈련할 때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경기장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다영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팀 장점과 상대 팀 약점을 엮어서 플레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지요. 세터로서의 신체 조건이나 운동능력, 순발력은 좋은 편이거든요. 세터는 수비를 공격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타점이나 특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공이 오는 순간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공을 줄 건지, 블로킹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요. 배구에는 드리블이 없어요. 공이 떠 있는 찰나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세터진을 강화하고, 패턴 플레이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의 세대교체 후 22세라는 어린 나이에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베테랑인 현대건설과 만났어요. 그 전까지 돌풍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세트스코어 3-0으로 대패했죠. 그리고 2년 후, 다시 결승전에서 현대건설과 맞붙어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결승전에서 참 자주 만났어요.

선수, 코치, 해설위원, 감독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에서 가장 애착이 가나요?

해설위원은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지만 여러 팀을 감독의 시선과 선수의 시선에서 살펴보고,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감독이라는 자리는 설렘과 부담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선수보다 지도자로 우승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해요. 선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감독은 선수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만큼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선수 시절 라이벌 구단에서 감독 데뷔 어떤 팀 만들어 갈지 스스로도 기대돼 끈질기고 재미있는 배구 선보일 것

아는 기존의 스태프들이 계속 거취를 이어가겠다고 해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새롭게 훈련에 들어간 선수단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아직은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네요(웃음). 집중력 있는 훈련이 필요해 강도를 높이고 훈련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할 땀 하고, 쉴 땀 쉬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힘들겠지만 선수들도 각오가 대단해 잘 따라와

현대건설 배구단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큰 장점은 높이예요. 블로킹의 높이와 공격의 높이가 좋죠.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비가 중요한데, 지난 시즌에는 수비가 흔들렸기 때문에 기복이 나타났어요. 기록 없는 좋은 플레이를 보이려면 선수들의 기본기도 중요해요. 선수들마다 보완점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본기와 정신력을 다질 생각이예요. 또 공격의 속도를 높이며 수비를 탄탄히 할 예정입니다.

선수로서 현대건설 배구단과 여러 번 경기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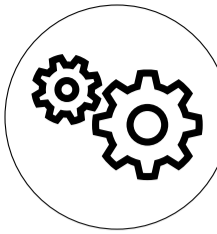
아시다시피 저는 GS칼텍스의 전신인 호남정유 배구단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현대건설과 호남정유는 엄청난 라이벌이었죠. 저도 제가 현대건설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웃음). 소속팀

감독으로서 세우고 싶은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색깔로 어떤 팀을 만들어 갈지 저부터도 기대가 됩니다. 첫 감독직이니 선수들과 더불어 저만의 철학을 만들려고 해요. 한 가지 우선하고 싶은 점은 선수 및 스태프들과의 신뢰와 화합이에요. ‘이도희 감독이라면 믿고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주세요.



양효진, 변명진, 황연주, 이다영, 박경현, 이도희 감독, 정미선, 고유민, 정다운, 한유미, 김세영, (왼쪽부터)



잠실역 7번 출구로 나와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에서 다다르면 우뚝 솟아 있는 직사각형 건축물이 보인다. 직조 패턴의 외관이 멋스러운 이 건축물의 정체는 우리 회사가 지난 2월 완공한 Tower 730. 1985년에 지어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데이터센터 부지를 철거하고 지은 연면적 8만여㎡ 규모의 임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글=박현희 / 사진 제공=에이앤뉴스 안정원



잠실을 밝히는 워크 플레이스 Tower 730

완성도와 수익성 함께 잡아야

잠실의 상업-업무 지구가 시작되는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27층 규모의 Tower 730이 늠름한 자태로 우뚝 솟아 있다. 현장 관계자는 "Tower 730의 입면 디자인(직조 패턴)은 조선시대 누에치기가 성행했던 '잠실도'를 추상화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4월 17일 찾은 Tower 730은 오피스 빌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1층에 들어서니 화려한 색감과 동양적인 붓 터치가 조화로운 오수환 작가의 추상화 작품 두 점이 눈길을 끌었다. 넓고 탁 트인 로비에는 사원증을 목에 건 회사원들이 바쁘게 오갔다.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Tower 730을 지하부터 찬찬히 둘러봤다. 지하 4층은 기계 집진실, 3-2층은 주차장으로 운영됐다. 지하 1층은 상업시설로 카페와 레스토랑들의 인테리이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상층은 8층부터 26층까지 이커머스(e-commerce) 기업인 쿠방이 본사를 이전해 입주해 있었고, 나머지 층은 현대해상과 그 계열사가 자리했다. 공실은 없었다.

Tower 730은 1985년 준공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데이터센터를 철거하고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한 임대형 오피스 빌딩을 짓는 PF(Project Financing) 형태의 프로젝트다. 발주처는 현대해상과 재가 100% 투자한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주)으로 사업비는 총 3900억원, 공사 규모는 1124억 8300만원이다. 공사는 2014년 4월 착공해 올 2월 말 완료했으며, 오는 5월 19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Tower 730을 수주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우리 회사는 2013년 말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의 입찰을 포기하려고 했다. 발주처가 시공 참여 조건으로 '준공 후 2년간 1만9835㎡(6000평) 임차 계약'이라는 조항을 내건 것.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 회사는 난색을 표했고, ㈜한라가 임차의사를 밝히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발주처는 PF사업 특성상 신용도와 지명도가 높은 건설사가 반드시 필요했다. 협의 끝에 우리 회사는 9917㎡(3000평)를 2년 임차하는 조건으로 ㈜한라와 지분율 50:50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착공 후 공사는 막힘없이 진행됐지만 임차 계약한 9917㎡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민은 의외로 한번에 해결됐다. 본사 이전을 위해 '임차 투어' 중이던 쿠방이 총 19개 층을 빌려줬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이로써 우리 회사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수익성이라는 성공 키워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혁신과 기술력이 집약된 현장

현장의 시계는 2014년 5월 철거를 시작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공사를 이끌었다. 현장은 12차로 도로, 보행도, 상업 건물, 오피스텔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2015년 3월 천



Tower 730 로비 전경



타워크레인 간섭 부분에 대한 커튼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잠실의 상업지구에 인간친화적인 건축물을 짓다

경 울벽(D-Wall)을 설치하고, 파일 천공 공법(PRD, Percussion Rotary Drill Method)을 이용해 땅에 구멍을 뚫어(4월) 터파기 공사(4-11월)를 실시했다. 터파기와 함께 지하 철골 공사(5-10월)와 지상 철골 공사(7월~2016년 3월)도 함께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톱다운(Top-Down) 공법을 적용해 지하층과 지상층을 동시에 공사했다. 굴착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는 이 공법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줄이는 데 크게 일조했다.

우리 회사는 커튼월 공사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한국형 유닛 커튼월 GT-K' 공법을 적용해 커튼월 강도를 높이고 공사 기간도 줄였다. 2016년 7월 골조(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9월 커튼월 공사를 끝내니 Tower 730의 멋진 외관이 드러났다. 우리 회사는 2017년 1월 수장 공사와 2월 조경 공사(옥상, 1층의 부)를 끝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현재는 하자보수 작업과 업체 정산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장 직원들은 "미학적인 면면을 자랑하는 잠실의 여타 건축물과는 다르게 더 인간적이고 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입을 모은다. 발주처에서도 "현대건설은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Tower 730은 현대건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우리 회사의 혁신과 기술력이 집약된 Tower 730 현장. 앞으로 이 현장이 우리 회사 건축 사업의 대표 프로젝트로서 이름을 알리길 응원한다.



1.4 근로자들이 철골과 골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2 Tower 730은 톱다운 공법을 적용했다. 3 23층에 커튼월 유닛을 설치하고 있다.

INTERVIEW

“철저한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소통... 현장의 자랑이죠”

전공정 무재대로 공사를 손조름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직원들의 담방울과 끈끈한 팀워크 덕분이다. Tower 730 현장 직원들이 전하는 준공 비하인드 스토리.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희진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1991년에 입사해 26년째 회사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경력이 7~8출밖에 안되는 대신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거나 남극 장보고기지나 북한 원자력발전소 같은 특수 현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2014년 4월에 부임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병재 부장대우(이하 김 부대) 전기공구장으로 2015년 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본사에서 5년 넘게 근무하다 현장 근무는 오랜만이었는데요. 소장님과 여러 직원들의 배려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리 대리(이하 김 대리) 2014년 5월에 공무 담당으로 부임했습니다. 공무 업무에 메인으로 공사 업무를 짧게 돕다 현재는 공무 담당자로서 공사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준 대리(이하 정 대리) 공사 담당으로 2015년 5월 15일 우리 현장에 부임했습니다. 공사부에 현대건설 정파를 입은 사람은 저뿐이고, 모두 ㈜한라 직원 분들이었는데요.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짝 긴장하고 근무했습니다(웃음).

박중훈 사원(이하 박 사원) 2015년 1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4월 우리 현장 기술 품질 파트 중 품질ENG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공장 자체 검사, 사원 품질 관리, 시공 중 품질 관리 및 샘플 테스트, 사후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했는데, 여러 선배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Q 공동도급 공사였는데, 어려운 점은 없

었나요? 김 부대 전기·설비·조경·토목·공무·관리부는 우리 회사가 맡았고, (㈜한라)는 공사부(건축)를 담당했습니다. 현장 인원은 22명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회사 직원이었죠. Tower 730 현장의 경우 부속들이 없는 한 개의 단일 오피스 건물이었기에 동별이 아닌 공종별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김 대리 공사팀장님은 (㈜한라, 품질팀장)님은 현대건설이었어요. 두 분은 사무실 책상도 나란히 앉아서서 활발하게 소통하셨죠. 두 회사 기준에 모두 부합하도록 항상 의논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도심에서 진행한 공사와 민원 점수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 대리 야간 기초 타설 작업을 할 때였어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집에 직접 찾아가 소음 정도를 체험해 보고, 공사 기간과 저감책을 설명해 드리며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철골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천막 보양 작업도 추가로 진행했죠. 진심이 통한 덕분인지 민원 횟수가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박중훈 사원, 김병재 부장대우, 전희진 현장소장, 김유리 대리, 정석준 대리(왼쪽부터).

가 족주했죠. 이를 해결하고자 자체 반입 계획서를 협력업체에 배포했습니다. 자재가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를 접수받은 후 적재적소 적시에 자재 및 중장비가 들어오게끔 시간대를 조율했죠. 이후 교통 체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잘 극복했다 생각합니다(웃음).

Q 우리 현장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현장소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은 『안전·보건 지침서』를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 현장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조회 시간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원 포인트'로 강요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29개월 전공정 무재대로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김 부대 소장님께서는 '회의는 짧을수록, 참석자는 적을수록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발주처 회의나 공구장 회의를 통해 나온 중요한 내용은 소장님께서 직접 정리해 '단톡방'에다 올려주셨죠. 덕분에 불필요한 회의로 에너지가 소모될 일이 없었습니다. 김 대리 팀워크도 물론 좋았어요. 소장님과 공구장님들께서는 아근할 때마다

현장소장 현장 직원들의 열정이 깃든 Tower 730이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현장으로 주요 발주처인 현대해상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소장 현장 직원들의 열정이 깃든 Tower 730이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현장으로 주요 발주처인 현대해상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masterpiece building in Jamsil area, Seoul

High quality, high profitability

Tower 730 stands tall in the intersection at the south end of the Jamsil Bridge where the commercial and business district in southeastern Seoul begins. The new skyscraper has 27 floors above ground and four basement levels. There are a machinery room and a dust chamber on the 4th basement level, and the car park is situated on the 2nd and 3rd basement levels. Interior finishing work for cafes and restaurants performed by tenants is underway on the 1st basement level. Coupang, Korea's e-commerce firm, already relocated to a office space located from the 8th floor to the 26th floor. The rest of the building is occupied by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and its affiliate companies. Currently, there are no vacancies in the building.

Tower 730 was built on a project finance basis, which was designed to build an office building contain-

ing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for lease. The landlord of the building is Hyundai Investment Asset Management. The Tower 730 project is valued at a total of 390 billion won, among which about 112.4 billion won is the construction cost.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at the end of February, and the building dedication ceremony is scheduled to be held on May 19.

Technology-intensive construction site

The clock moved very fast as soon as Hyundai E&C began to demolish the data center of Standard Chartered Bank in May 2014. As a main contractor, our company led the Tower 730 project. The construction site was surrounded by a 12-lane road, sidewalks, commercial buildings and studio apartments. To reduce the inconvenience of pedestrians and residents, our company embark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eco-friendly D-wall in March 2015. Following that, we used the percussion rotary drill (PRD) method to drill holes in the ground in April and conducted excavation work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to November. Our company employed the top-down method to work on the construction of the basements and above-ground levels at the same time. The use of the top-down method, intended to minimize noise and dust caused by the excavation work, contributed to reducing construction-related complaints from the neighborhood.

Hyundai E&C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curtain wall system as well. The use of GT-K, a home-made curtain wall designed to withstand earthquakes of over 7 on the Richter scale, led to increasing the strength of the curtain wall and cutting back on the construction period. Our company completed the project by finishing up interior finishing work



in January and landscaping work in February this year.

Those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said that they wanted to create a more humane and more eco-friendly building which is different from any other buildings in the area simply boasting of all their aesthetic aspects. Moreover, the client highly evaluated Tower 730 by saying that Hyundai E&C made its effort to realize a less energy-consuming and more sustainable building, and Tower 730 shows the real worth of the company.



도시의 지상공간이 포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공간활용법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로 위 활용이다. 우리나라가 도로 상공과 지하공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우리보다 약 40여년 전 독일에서는 이미 도로 위에 아파트가 세워졌다. 소음과 진동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된 베를린의 슈랑겐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글·사진=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1981년, 독일 베를린의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슈랑겐 아파트 전경. 2 발코니와 테라스도 갖춘 아파트 외관. ©Dirk Ingo Franke, CC-BY-SA-3.0, via Wikimedia Commons 3 슈랑겐 아파트와 유사한 원리로 세워진 일본 오사카 게이트타워 빌딩. ©Ignis, CC-BY-SA-3.0, via Wikimedia Commons 4 슈랑겐 아파트 설계도면. 도로와 건물이 다른 기초 위에 구축됐다.



고속도로 위의 공중 주택, 슈랑겐 아파트

도시공간 활용, 도로 위를 주목하다

2008년 서울 서초구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400m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한다. 고속도로 위의 빈 공간을 이용하면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 등의 노력이 필요 없고, 고속도로로 양분된 공간을 연결해 서울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발상이었다. 비록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포화상태인 도시공간 활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계획이었다.

10여년이 지난 올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입체도시시대를 선언하며 규제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에만 허용하던 도로 개발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해 문화·상업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도로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획

하고 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의회는 우리보다 40년 전에 이미 이와 비슷한 개념을 구체화했다. 슈랑겐바더(Schlängenbader Strasse)라는 도로 위에 슈랑겐 아파트(Schlängen Apartment)를 건설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베르텔스만(Bertelsmann)이란 건축가가 설계해 1981년 준공됐다. 1980년대의 베를린은 주거공간 부족과 도시공간 확장의 한계로 공간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도시공간의 상당 부분을 이미 도로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주택을 건설할 공간도 부족했다. 베를린 시의회는 도로변을 따라 길게 아파트를 배치하고 도로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을 세우려고 했으나 논의 끝에 도로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축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아파트를 지나는 도로 구간을 터널로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도로의 진동을 아파트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슈랑겐 아파트는 당시 신설된 고속도로와 슈랑겐바더 도로 위에 지어졌다. 고속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면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고속도로 아래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 또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세대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소음과 진동 해결은 물론 환경까지 고려

슈랑겐 아파트는 지상 15층, 46m 높이에 너비는 600m에 달한다. 옆으로 길게 이어지는 모양이다. 총 1000가구가 넘어 단일 아파트로는 유럽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원룸부터 2개 이상의 방을 갖춘 멀티룸까지 구조도 다양하다.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에는 테라스와 발코니도 딸려 있다.

아파트 설계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였다. 배기가스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 터널 내의 차량 흐름을 일방통행으로 했다. 또한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 배기가스가 아파트

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외벽보다 터널 입·출구를 50m 더 연장해 설계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엔진과 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함께 구조물에 많은 진동을 발생시킨다. 소음은 터널로 인해 쉽게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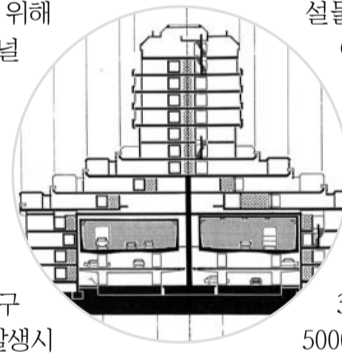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진동이다. 차량 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구조물을 따라 전달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해결책은 아파트와 고속도로를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터널과 아파트 부분은 서로 다른 기초 위에 구조적인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구축됐다. 다만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달리 지하 주차장은 터널 하부에 배치되므로 터널과 동일한 기초 위에 구축했다. 진동이 전달될 수밖에 없지만 거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진동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였다.

슈랑겐 아파트는 기능은 물론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고질적 문제인 쓰레기 처리도 깔끔하게 해결했다. 집 안에 쓰레기 수직 투하 장치를 설치해 입주민이 쓰레기를 들고 내려와야 하는 수고를 덜었다. 일정한 장소에 투하된 쓰레기는 진공 흡수 방식의 쓰레기 수평 집하 장치에 의해 한 곳에 집결된다. 입주자 필요에 맞춰 내부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를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친환경적 설계도 도입했다. 터널 상부의 3개 층은 테라스 하우스로 설

계하고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단열 성능을 향상했다.

'비용 및 구조 기술' 숙제 해결 필요, 도시환경 변화 가져올 것

슈랑겐 아파트와 같은 도로 위 시설물 건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사업비다. 슈랑겐 아파트는 당시 평균 건설단가인 ㎡당 1500마르크(약 97만5000원)보다 2000마르크가 더 들어간 3500마르크(약 227만5000원)가 투자됐다. 약 2.3



배나 많은 건설비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나마 베를린시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도로 좌우측 택지를 기증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구조 검토와 기술적 문제다. 슈랑겐 아파트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과 동시에 설계되고 지어졌다. 기존 도시의 도로 위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기존 고속도로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슈랑겐 아파트 외에도 고속도로나 철도 위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 오사카 게이트타워 빌딩 4~7층을 관통하는 한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한 듀프레 니시야마토,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를 잇는 A7 고속도로 위 공원 조성 사업 등이 그 예다. 도로 위 공간 활용은 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평면 공간을 입체화해 도시 미관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개발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슈랑겐 아파트는 그 변화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구조적 난제 해결해
도로 위 시설물 건축 롤 모델로...
건축물, 공원 조성 등
국내 적용 기대 돼



언제부터인가 반려식물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다.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처럼 식물의 존재감도 커진 것이다. 반려식물은 며칠 보고 저버리는 화병의 꽃과는 다르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였다가 시들면 그만인 화분도 아니다. 새 잎을 내고 꽃을 피웠다 지우며 주인과 삶을 공유하는 식물이다. 소리 없는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반려식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글=서수현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 사진=소소한플라워·오늘하루꽃

식물을 곁에 둔다는 것의 좋은 점

‘관상용부터 공기정화, 인테리어 등을 위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식물’ 떠오르는 신조어, ‘반려식물’의 정이다. 동물처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식물이 어떻게 반려식물이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식물은 동물처럼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식물과 교감은 할 수 있다.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많은 이가 현대인의 질병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한다. 가만 생각해 보면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를 풀 시간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훨씬 완화되지만, 우리가 살아가거나 활동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삭막함이 느껴지는 시멘트, 돌, 철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초록을 만나기가 힘들다.

직장인들이 조금이나마 자연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사무실 또는 집에 식물을 두는 것이다. 녹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사람이 식물을 볼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편안한 정서에서 나타나는 알파파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덕분에 식물로 사람을 치료하는 원에 치료도 생겨났다.

효과가 탁월한 식물의 정화작용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섬유, 실내가구와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각종 화학물질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온도 및 습도 그리고 환기 정도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는데 사람의 눈, 코, 목 등을 자극하는 물론, 농도가 높아지면 현기증, 기침 등을 유발한다. 이런 포름알데히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식물을 키우는 것이다. 식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자연의 정화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식물은 낮에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공기를 상쾌하게 만든다.

입문자가 기르기 좋은 반려식물

“나는 식물 기르는 데에는 소질이 없어 키우는 족족 죽이게 된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완동물을 기를 때를 생각해 보자. 이 동물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품종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잘



아이비



스파티필름



다육식물



관심과 배려로 돌보는 생명체이자 정서적 위안과 행복을 주는 존재, 교감하며 삶을 나누는 동반자

을 주면 다시 통통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잎 속에 물을 저장해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물의 상태를 보면서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보통의 식물들과 달리 다육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 곁에 함께 두어도 좋다.

3 에어플랜트(틸란드시아)

남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식물로, 미세 먼지를 흡수한다고 해서 요즘 가장 ‘핫’하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습한 곳에서는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다. 단 대부분의 실내는 건조하므로 하루에 한 번씩 분무기로 물을 뿌려 준다. 흙이 필요하지 않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중에 매달아도 되고 다른 소품들과 함께 책상에 올려만 두어도 잘 자란다.

4 유칼립투스

실내 공간에 퍼지는 은은한 식물의 향기를 원한다면 꽃바구니나 부케에 많이 쓰이는 유칼립투스를 추천한다. 동그란 잎이 흰색을 띠고 줄기가 하늘하늘하게 흔들려 모양이 예쁘다. 추위에 강해 베란다에서 키워도 괜찮다. 물을 줄 때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화분 밑에 구멍이 있는 것이라면 밑에 물이 고일 정도로 흠뻑 주면 좋다.

5 스파티필름

이 식물도 NASA가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이다. 특히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 두면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주방들에게 인기가 좋다. 가슴 효과도 뛰어나다. 스파티필름은 다른 식물에 비해 밤에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이 적다.

6 보스턴 고사리

NASA의 공기정화 식물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식물이다.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담배연기가 있는 곳에 두기 좋다. 단, 고사리과의 식물들은 약간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한 곳이라면 물을 자주 주어야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매일 주거나 1주일에 두 번 정도 흠뻑 주는 것이 좋다.

조용한 기쁨을 건네다, 반려식물

먹고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물의 양과 빛, 일조량 등이 식물마다 다르다.

식물에게서 일반적으로 편안함만 얻을 수는 없다. 기르는 사람도 식물에게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식물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식물은 실외용, 실내용 식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 식물의 고향, 즉 자생지에 따라 키우는 방법이 달라진다. 식물을 놓을 곳의 일조량과 습도, 건조함 등에 따라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잎이 크고 번쩍거리는 식물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이 많다. 바깥 날씨가 덥고 습하며 햇빛이 따사로운 곳이다. 이들은 당연히 햇빛이 잘 내리쬐는 습한 곳에 있어야 한다. 반면에 실내에서 많이 키우는 고무나무, 드라세나, 몬스테라 등의 관엽식물은 햇빛이 약한 실내에서도 잘 자란다. 춥고 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처음 식물을 기르거나 식물을 키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예민하지 않고 관리가 쉬운 식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아이비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30가지 중 하나다. 우주선

기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주선에도 실린다고 한다. 빛이 적어도 잘 크고 흙을 털어내고 물에 넣어놓아도 잘 자란다. 화장실 같은 곳에서도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물 중 하나다. 단, 잎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을 만지고 눈을 비비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다육식물(선인장과)

선인장의 서식지인 사막을 떠올리면 다육식물 관리가 한결 쉬워진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물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된다. 다육식물의 잎이 쪼글쪼글해진 경우 물

Tip 식물에 대한 상식 바로잡기

물은 등뿔 줘야 한다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이 무조건 물을 등뿔 주는 것이다. 식물의 뿌리는 물과 공기가 적당히 있어야 잘 자란다. 화분 흙을 살펴보면 알갱이처럼 뭉쳐 있는데, 물을 주면 이 공간들 사이로 물이 차게 된다. 물을 많이 주면 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지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없다.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은 화분에 따라 달라진다. 밑 구멍이 있는 화분은 흠뻑 주어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구멍이 없는 화분은 밑부분에 굵은 자갈을 넣어 배수층을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물이 차도 뿌리에 닿지 않게 하거나 물이 화분에 고여있지 않을 정도로만 줘야 한다.

X 식물은 감정을 못 느낀다

식물도 감정이 있고 기억력이 있다. 식물을 키울 때 고풍한 음악을 틀어주면 더 잘 자라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묘하지만 잎을 건드리면 오므리는 식물은 바람이나 빗방울같이 자연 현상으로는 변화가 없으나 인위적인 행위에는 반응한다. 이는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위

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선인장은 전자파를 차단한다

선인장의 경우 잎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식물보다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컴퓨터나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는다고 보호막이 쳐지는 것처럼 차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전자파를 흡수한다 하더라도 선인장이 자라기에는 컴퓨터 앞보다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 훨씬 적합하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성공하는 기업의 비밀

중국 최대 포장지 제조회사인 주룽(玖龍)제지의 1대 주주이자 창업주인 장인(張茵·57) 회장은 폐지(廢紙) 수집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5조원대 자산가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다. 후룬(胡潤) 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후룬 50대 중국 여성 부호 순위'에서 5조2200억원이 넘는 재산으로 6위에 뽑혔다. 그런 장 회장은 사내에서 '장 큰 누나(張大姐)'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그는 회사 출근시 외부 약속이 없는 한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수시로 직접 메뉴 개선을 지시한다. 또 매년 양력 1월 1일과 음력 설(구정) 중간 가운데 하루를 잡아 열리는 주룽제지의 춘절만회(春節晚會)라는 연말 결산 및 신년 개막 축제 때는 아무리 먼 곳에 출장가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와 참석하는 관행을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장 회장은 직원들과 서로

(Intel)사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회장은 본사 건물에 전용 주차장이 없이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선착순 주차를 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회장 집무실 크기는 가로 12피트, 세로 9피트로 일반 직원들이 쓰는 것과 거의 똑같다. 사업 부문

신뢰 없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어... 리더의 진정성과 소통하려는 노력만이 성공의 열쇠

1996년 회사 설립 후 "직장은 소가정(小家庭)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과 스킨십에 온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장 회장은 남편과 함께 직원들이 근무하는 중국 남부 광둥성 둥관(東莞)에 있는 기숙사 맨 꼭대기층에 거주하고 있다. 본사에 있는 회장실의 사방 면은 100% 투명 유리로 만들어 놓았다. 직원들이 언제든지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투명한 소통으로 '동고동락(同苦同樂)'하겠다는

어깨동무하며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준다. 직급과 업무 성과에 따라 1인당 수천 위안에서 수십만 위안까지 넣은 홍바오(紅包·감사 표시)로 지폐를 담은 붉은색 봉투를 나눠주며 임직원과 포옹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온 마음과 온몸으로 임직원들과 호흡하는 장인 회장의 노력 덕분에 주룽제지는 10년여 만에 아시아 최대 골판지 생산업체이자 골판지 브랜드로 세계 5위권에 드는 글로벌 회사가 됐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미국 인텔

별 CEO들은 해외 출장 때 3시간 이내 거리일 경우에는 비즈니스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탄다. 인텔 측은 "직원들이 최고며 그들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려면 말로만 되지 않는다. CEO부터 몸소 실천하는 게 인텔의 오랜 전통이자 정신이며, 크르자니크 회장은 이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권위주의를 배격하며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채 다면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인텔의 기업문화는 상·하급자 간에 활

발한 토론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촉발해 승승장구하는 '인텔 신화(神話)'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진정성 넘치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

사실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상·하급자 간에 신뢰가 없는 기업이나 조직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선현들이 설파한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장군부터 최하위 병사까지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꿈을 가지면 승리한다. 『손자병법』)이나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하늘의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지형적 이점만 못하며, 지형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인화만 못할 것이다. 『맹자』)"는 말씀은 20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성공 철칙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논어』의 '안연(顏淵)편'에 실린 글에서 제자인 자공(子貢)이 '정치'에 관해 묻자,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족식), 군대를 충분히 하고(족병),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민신)"고 대답했다. 공자는 특히 군대나 식량은 포기할 수 있더라도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고 강조했다.

국가나 기업, 조직, 인간관계에서 모두 믿음과 의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서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

화'와 '소통' '신뢰 쌓기'에서 두루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일 것이다. 전체 조직원들이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리더의 우수한 자질과 실행력이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기승을 부리는 최첨단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 『도덕경』 제60장)"는 지적은 곱씹어 볼 만하다.

지도자가 큰 그림을 그리며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지만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리더의 진정성 넘치는 노력으로 "이 조직은 내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조직 전체에 확산된다면 '병사들은 공격하지 말라고 해도 공격할 것이요, 싸우지 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적을 향해 뛰어가(『손자병법』) 최상의 직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조직과 직장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수준과 경쟁력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신비한 현대사건
제1화 『사막의 장미를 찾아라』

우연히 현대건설 역사책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건사원,
자, 그럼 이곳에서 장미를 찾아 주시겠어요?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장미를 찾으라는 거야!
사막의 장미- 장미-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카타르에 도착한다!
예예...??!!
응? 현이씨도??!!

어쩌면 수수께끼일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봅시다.
혹시 사막에 생긴다는 모래장미?
모래장미 (desert rose)
물에 갈인 예수가 증발하면서 침전물이 굳어 만들어진다고 한다.

아깝네요~ 비슷했지만 틀렸어요.
비슷했지만 틀렸더라~
모래장미와 연관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크음~!

방금 건 연습문제였어요.
어라?
그시각 사무실
현대건설 역사책 아냐?
왜 이런데 떨어져 있지?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그렇다면 모래장미를 모티브로 삼아 장누벨이 디자인한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즈커' 수상자
사막에 핀 모래장미, 카타르 국립박물관이야!!
후후 제법이신걸요? 바로 정답이에요!!
316개의 원형 패널이 뒤섞여 건물 전체가 기하학적 형상을 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정형 건축물 '카타르 국립박물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였지만, 현대건설은 예뻐했어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화시킨 현대건설만의 탁월한 능력을 여실이 보여주었죠!
어때요, 위에서 보니 더 장관이죠?
그건 그렇고 정답을 맞혔으니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정말 멋져요!
무슨 소리죠?
아?

서울 계동 본사 건너편의 익선동. 1920년대에 지은 한옥 주거단지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인 이곳이 '핫플레이스'로 변화하고 있다. 직장인에게 주어질 점심시간은 1시간. 익선동 전체를 둘러보기엔 무리지만 발걸음만 서두르다면 식사와 디저트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글=박현희/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3
2017/04/27/Thursday

타박타박, 점심시간 익선동 산책



1 유명해지기 전에 들려야 할 한옥 레스토랑, 익선키친

익선동에서 식사와 디저트까지 모두 해결하려면 마음이 급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익선키친은 우리 회사에서 650m 떨어진 곳에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길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9분가량 소요된다고 알려준다.

익선키친은 예약 위주로 운영된다. 사전에 미리 주문하면 도착해서 크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곳

의 주인장은 올케와 시누 사이라는 임미애-이주훈씨. 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이주훈씨가 주방을, 전업주부였던 임미애씨가 홀을 맡았다. 익선키친의 장점은 풍성한 메뉴 구성과 맛이다. 아보카도 낫토 덮밥, 익선학박 정식, 명란파스타 등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먹기 좋은 메뉴부터 리코타 치즈 카나페, 익선 계란말이, 감자전, 데리야키 직화삼겹, 라자냐, 찹스테이크 등 안주 메뉴까지 다양하다.

(사보신문) 취재진은 아보카도 낫토 덮밥(9000원)과 익선학박 정식(1만3000원), 라자냐(2만2000원)를 맛봤는데, 모두 나무랄 데가 없었다. 특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보카도와 낫토로 만든 덮밥이 가장 맛있었다.

모든 음식에는 조미료가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소스 하나까지 주방장이 이씨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다. 알코올 음료도 판매한다. 다양한 종류의 병맥주와 100년 전통의 상주 은자골 막걸리, 하우스 와인 등이 준비돼 있어 저녁 회식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지난 1월 3일에 오픈해서인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좀 더 유명해지기 전에 꼭 한번 둘러보자.



라자냐(아래)와 아보카도 낫토 덮밥.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익선키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 제시시 결제금액에서 10% 할인
5월 한달간

익선키친
주소 중로구 돈화문로 11나길 32-1
영업시간 11:30~22:00(월요일 휴무)
문의 02-764-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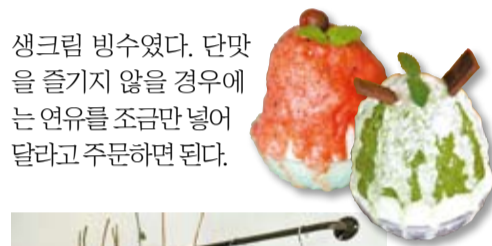
도교빙수익선동점
주소 중로구 상일대로 30길 43 승정빌딩 1층
영업시간 11:00~22:00(연중무휴)
문의 02-762-0716



2 망원동에서 이미 유명한 일본식 빙수 맛집, 도교빙수 익선동점

망원동에서 이미 유명한 일본식 빙수 맛집 '도교빙수'의 익선동 지점이다. 친구 사이인 이상현·정범중씨가 지난 3월 야심차게 오픈했다. 일본식 빙수와 한국식 빙수의 가장 큰 차이는 토핑. 재료를 잘게 썰어 씹는 맛이 있는 한국식 빙수와 달리 일본식은 재료를 곱게 갈아 시럽처럼 얼음 위에 뿌린다. 인기 메뉴는 방울방울 토마토 빙수, 단호박 캐러멜 빙수, 말차 생크림 빙수로 가격대는 8900~1만5000원 선.

밀린 주문이 없어서인지 6분 만에 두 개의 메뉴가 나왔다. 곱게 간 토마토에 알싸한 통후추가 뿌려진 토마토 빙수는 먹는 순간 피로를 잊게 해주는 맛이다. 말차 시럽 위에 생크림이 올려진 말차 생크림 빙수는 일본의 후지산과 닮았다. 빙수 속에 콕콕 막힌 생초콜릿은 말차 시럽과 무척 잘 어울렸다. 도교빙수의 No.1 메뉴는 토마토 빙수였지만 (사보신문) 취재진의 선택은 말차



토마토 빙수 (왼쪽)와 말차 생크림 빙수.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도교빙수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 제시시 빙수메뉴 10% 할인
5월 한달간



〈SPA 시험〉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This picture appears to be taken at an outdoor shopping district. There is a woman with bright red pants and a white sweater walking with a young woman who might be her daughter. They are walking down a sidewalk. The woman is looking at some clothes in a shop on the right side of the photo. There is a table with some accessories in the foreground, next to the clothing shop. On the left side of the photo I can see a stop sign at an intersection and some cars parked along the road. There appear to me more shops after the intersection. The day looks sunny and I think the temperature is warm but not too hot as most people are wearing light pants and light shirts. They look like they are enjoying their day.

Opinion Question 유형

Are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Entitled to a Public Education?

A new Alabama immigration enforcement law requires schools to ascertain the immigration status of students at registration. Since the announcement, officials have noticed that 5 percent of the state's Hispanic children are absent from classrooms. Do the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have the right to a public education? Why or why not?

I believe that every child in this country is entitled for public education. It does not matter if that child is or is not undocumented. It is not a child's fault if he or she happens to be undocumented. What kind of people will we be if we stop letting kids go to school just because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ese children are still human and have dreams. Are we really going to let a simple "Legal" and "Illegal" status get in the way of child's future? I don't care if my taxes help pay an undocumented kid's education. Every kid in this country deserves to go to school.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문화책갈피

두 다리, 자동차, 자전거... 무엇이든 상관없다. 달리기 좋은 때니까. 이 계절, 달릴 때 들으면 좋은 음악들을 소개한다.

달리며 듣는 음악 베스트



HONNE
〈Warm On A Cold Night (Deluxe)〉

영국 팝 듀오 혼네(HONNE)가 2016년 7월에 발매한 〈Warm On A Cold Night (Deluxe)〉는 클래식한 소울과 신스 사운드가 만들어낸 감각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앨범이다. 연애와 사랑,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무질서한 감정을 16개의 곡을 통해 전달한다. 해질 무렵 자동차 안에서 들으면 어울릴 듯하다. 연인과 함께라면 데이트 분위기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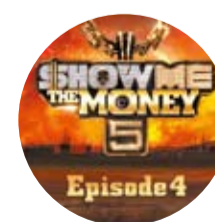
Glen Check
〈Haute Couture〉

2012년 3월 정규 1집 〈Haute Couture〉를 발매하며 2013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댄스 & 일렉트로닉 음반상'을 수상한 신예 밴드 글렌 체크(Glen Check). 운동할 때 무조건 비트가 빠르고 신나는 음악이 좋다면 이 앨범을 강력 추천한다. 1집 수록곡인 '60's Cardin' 전주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빨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Red Hot Chili Peppers
〈The Getaway〉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펑크 록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 지난해 6월 발매한 〈The Getaway〉는 이들의 11번째 정규 스튜디오 앨범이다. 귀에 착착 감기는 베이스, 탄탄한 기타 리프, 부드럽고 섬세한 피아노 선율, 재치 있는 드럼에 직선적이고 담백한 보컬은 달릴 때의 기분을 더욱 경쾌하게 만든다.



SHOW ME THE MONEY 5
〈Episode 1~5〉

Mnet 힙합 가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 5〉에 나온 곡들을 모은 앨범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비와이, 씨잼, 슈퍼비, 샛건, 레디 등 래퍼들은 일약 대중의 인기를 거머쥐었다. 방송에 나온 곡들은 대개 대중적이어서 힙합을 잘 몰라도 듣기에 나쁘지 않다. 자전거 안장 위에서 들으면 더욱 어울릴 듯.



유니스 황
〈생각의 풍경〉

달릴 때 반드시 신나는 곡만 들으라는 법은 없다. 피아니스티자 작곡가인 유니스 황의 〈생각의 풍경〉은 2013년에 발매된 그녀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이다. 〈생각의 풍경〉은 삶에서 만난 풍경들을 음악으로 표현해 냈다. 추천곡은 '일렁이다'와 '비자림에서'. 유니스 황 특유의 감성이 담긴 음악을 들으며 달리면 눈앞 풍경이 근사하게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힙스터들의 개성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기록하는 사진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토드 셀비(Todd Selby)의 전시가 10월 29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대표 사진 작품뿐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 영상, 대형 설치 작품까지 두루 만날 수 있다. 사진 제공=대림미술관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3
2017/04/27/Thursday

2017.4.27~10.29
대림 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길 21 | 02-720-0667



1



2

- 1 Uncle Johnny at the Cactus Store, Los Angeles, 2015
 - 2 Yoshikazu Yamagata at his Studio, Tokyo, 2012
 - 3 Eric Werner & Mya Henry at their Restaurant Hartwood, Tulum, Mexico, 2011
 - 4 Virginia Bates at Home and Store, London, 2013
 - 5 Annie Novak at her Rooftop Farm, Brooklyn, 2010
- © All Images Courtesy of The Selby



4



3



5

DAELIM MUSEUM

#즐거운_나의_집 展

토드 셀비와 친구들의 유쾌한 라이프

토드 셀비는 다수의 매거진, 브랜드와 함께 작업하는 사진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그가 유명세를 얻은 것은 2008년 홈페이지(theselby.com)를 통해 지인들의 사적인 공간을 사진으로 담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부터다. 그는 전문적으로 사진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는다. 사람, 사물, 장소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예술 세계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구성이 독특하다. 입구부터 전시장 내부, 정원, 카페까지 미술관 전체가 즐거운 에너지로 가득한 '셀비의 집'이다. 전시는 힙스터(Hipster)들의 사적인 공간을 촬영한 초기 작품을 비롯해 패션과 요리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의 역동적인 작업실과 창의적인 주방을 담은 230여 점의 사진들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샤넬의 수장 칼 라거펠트, 구두 디자이너 크리스찬 루부탱, 패션 매거진 <퍼플>의 편집장 올리비에 잠 등 일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유명인들의 사적 공간을 사진과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의 결합을 통해 엿보는 것이 꽤 흥미롭다. 힙스터들의 유연한 사고방식과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이 가득한 'The Selby House' 展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